

李 대통령, 청와대 출근... 첫 일정 국가위기관리센터 점검

대통령실 명칭 ‘청와대’ 변경

아침 차담회에서 주요현안 보고받고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아그레망 재가
李, 본관 집무실 아닌 여민관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후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은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국가범죄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 병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곳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집무실이 전으로 많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복귀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설 개선 공사 기간에도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의 손에 국민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집무실을 둘러보며 경호처장과 유사시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로 이동해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첫 안건으로 재

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여민관에서 업무를 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관(與民館)에서 국민과 국정 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이 같은 건물에서, 참모진들과 소통을 하며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결

정과 토론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아침마다 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 같은 경우도 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회의 체계부터 3실장 중심의 그런 회의 체계까지 주로 회의로 이루어지는 의견 소통 과정을 통해 참모와 소통하고 좀 더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여민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붉은 색은 보수진영, 푸른 색은 민주진영, 흰색은 중도를 각각 상징한다. 강 대변인은 “흰색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새로운 출발 이상의 통합이 주요한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있던 봉황기는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 첫날 용산 청사로 출근한 지 1329일 만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혁신기업 성장 친화적 제도·환경 만들어야” “변화 지켜보지 말고 한발앞서 실행하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신년사 “AI·디지털 전환·GX, 韓의 핵심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중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다”면서도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

어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한국 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동안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협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업가정신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허태수 GS그룹 회장, 경영계획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 유지·리스크 대비해야”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026년을 변화 대응을 넘어 실행과 성과로 완성하는 해로 규정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GS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2026년 새해 경영계획을 밝히고 “변화를 지켜만 보지 말고 한발 앞서 실행해 성과로 완성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 환경 전반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6년 역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위기 돌파의 출발점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



다. 그는 “자유가 기초와 수요 둔화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화학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

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치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회요인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허 회장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에너지 전환, AI·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는 새로운 사업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GS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연관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65세 이상 고령층 40% ‘경제활동’ 한다

데이터처, 상시근로 43% 일용직 30%
월 평균 카드 사용금액 85만2000원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40% 이상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85만 원 수준으로 소매업(42.1%)과 보건·의료(10.6%) 등에서 사용 비중이 컸다. 또 총인구 중 사회적

외톨이로 분류되는 이른바 ‘교류저조층’은 약 5%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은 43.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65~69세의 근로자 비중은 59.3%를 기록했다. 80세 이상도 20.7%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고령층 근로는 상시근로자 42.8%, 일용근로자 29.5%, 자영업자 27.8%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올해 1분기 기준 85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업종은 소매업이 42.1%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10.6%), 운송(10.0%), 음식점(9.2%)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32만 8000원에 그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량공급 능력 갖춘 SK하이닉스가 유리”

>> 1면 ‘HBM3E 대세 지속...’서 계속

엔비디아에 제공한 HBM4 유사 샘플이 최종 품질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하며 양산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15X는 총 2개의 클린룸으로 운영된다. 내년 2월 첫 번째 클린룸 가동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두 번째 클린룸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또한 평택 캠퍼스에서 HBM4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수행하는 토텐 솔루션과 앞선 미세 공정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3E는 내년에도 시장 수요의 주류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차기 격전지로 꼽히는 HBM4의 경우 공급업체 수와 주요 고객사 인증 마무리 시점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과 가격 변동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 유통업체 정산기간 대폭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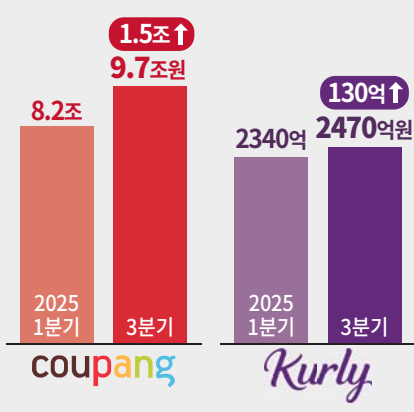
업계 ‘늑장 정산’ 관행 정조준
일각선 ‘규제의 역설’ 우려 제기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경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통업계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금 정산 기한 단축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 판로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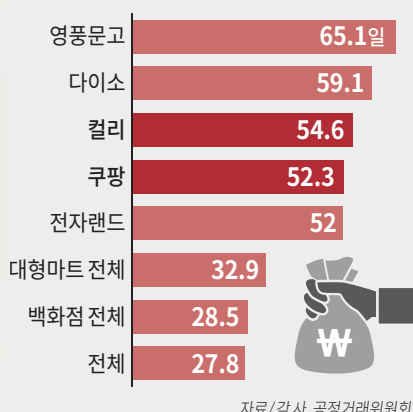
지난 28일 공정위는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법률 개정 방안을 설명했다. 1년 유예를 두고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 등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공정위가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인 건 대다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계 평균 대금 지급일은 27.8일(직매입 기준)로 30일 이내다. 또한 위수탁 거래와 달리 직매입은 상품 수령 즉시 납품업체의 의무가 종

쿠팡·컬리 매입채무 추이



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기간



자료/ 각 사, 공정거래위원회

료되고, 소유권이 유통사로 넘어가는 특성을 고려해 검수 등 최소한의 행정 기간을 포함한 30일을 법정 지급 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M촌점점·메가마트(54.5일), 컬리(54.6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은 유통업계 평균보다 긴 지급일을 보였다.

법정 상한선(60일)을 꼭 채우며 지급한 기업들은 정산 기간 단축 시 자금 흐름에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만

큼 매입채무가 줄어들면서 가용해야 할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입채무는 기업이 상품을 매입한 후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을 의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정산 주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정산주기 단축으로 인해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입채무는 약 67억9500만 달러(약 9조 7000억원)로 전체 부채액 139억2700만 달러 중 48.8%에 달한다. 컬리는 3분기 매입채무가 약 2470억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209억원보다 많아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 대기업 독과점을 심화하고 소상공인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 특성상 규제 비용이 입점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시장은 다수의 영세 판매자가 긴 꼬리를 형성하는 ‘롱테일 법

칙’이 적용되는데, 급격한 정산 단축은 플랫폼으로 하여금 관리 비용과 반품 리스크가 높은 하위 판매자들을 정리하고 대형 판매자 위주로 거래를 재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일부 플랫폼의 늦은 정산으로 불만이 컸던 만큼 기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확실적인 규제 가자칫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문위원은 “플랫폼이 위험 관리를 명목으로 입점 문턱을 높이거나, 영세한 하위 사업자와의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동성 확보에 따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 다른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퇴직금 미지급에 블랙리스트까지 유통업계 노동환경 개선 ‘공회전’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99건 위반
상당수 행정종결… ‘숨방망이’ 논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이 새로 적발된 데 이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 상당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종결 처리되면서 ‘숨방망이 감독’ 논란도 불거진다.

29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29.3%), 쿠팡 본사 8건(8.1%)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거진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확인됐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11건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쳐, 쿠팡의 위반 규모가 경쟁사 대비 약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중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맞물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은 총 220건에 달했고,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한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소는 9건(4%)에 불과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 역시 유사한 양상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블랙리스트 신고는 총 19건으로,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9일이었다.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난방할 때는 문을 꼭 닫기!!

20℃ 겨울철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

OFF 안쓰는 제품 전원 끈기!!

난방은 이십(20)~도

일단 해보는거죠~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깐!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동서발전주

석화업계, 범용 한계에 고부가 이동… 수익성은 여전히 과제

中발 공급 과잉에 범용탈피 불가피
스페셜티·첨단소재 중심 재편 가속
고부가 진입 장벽 낮아져 경쟁 심화
차별화 기술·수요 없인 성과 제한
전환은 필수지만 수익성은 미지수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부가 분야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 제품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스페셜티 소재와 신성장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업황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모델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기존 3대 성장 동력인 친환경 경소재·전지소재·혁신신약에 석유화학 고부가 전환을 추가해 4대 성장 동력 체제로 재편했다.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는 수소 처리 식물성 오일(HVO),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차세대 기술 선점에 나서는 동시에 나프타 구매 구조 혁신과 유틸리티 절감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 강

화에 주력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자동차·가전·의료용 고부가 수지(ABS), 전기차용 고기능성 합성고무(SSBR), 반도체용 IPA,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부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신소재·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첨단소재 부문 역시 전지·전자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전지 소재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2030년까지 외판 비중을 50% 이

상으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동화·전장화수요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롯데케미칼도 고부가 기술 중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고부가 스페셜티 비중을 매출의 60%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초소재 범용 제품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3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 울진산업단지에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갖춘 ‘롯데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50만t 규모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모빌리티·IT 산업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 공급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DL케미칼은 수익성이 낮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운스트림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단종하고, 일부 설비는 스크랩 처리 또는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축소되는 생산 능력과 원료 가격 부담을 상쇄

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 중심의 연구개발(R&D)에 역량을 집중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의 고부가 전환이 명확한 수요가 선행된 전략이라기보다 업황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공급 과잉 압박 속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충분한 시장 검증 이전에 고부가 영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를 찾아 고부가 분야로 이동하는 선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국·중동·인도 등에서 대규모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으로 맞서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차별화된 공정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부가 전략 역시 제한적인 수익성 개선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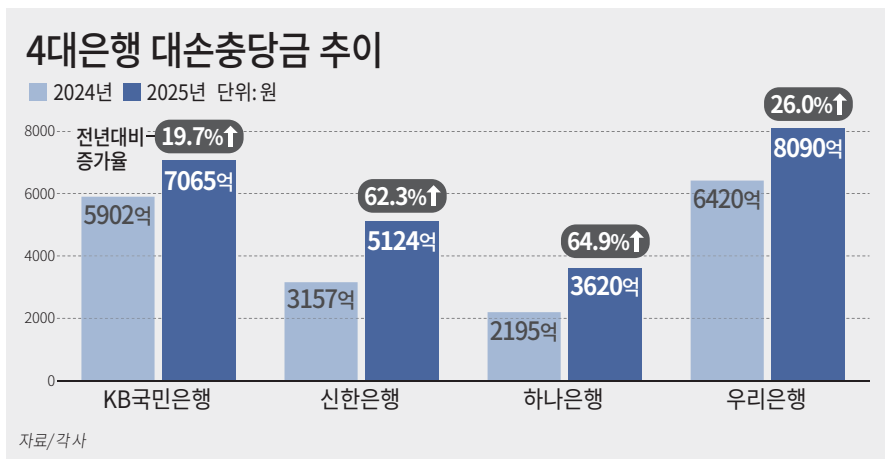
환율·연체율 부담 커지자… 4대은행, 총당금 전입액 ‘급증’

3분기 누적 2조4000억 전년비 35% ↑
하나·신한은행 총당금 증가폭 두드러져
기업 연체율 0.69% 중소기업 0.84%
환율 상승 변수에 중기 부실 우려 확대

주요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손충당금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총당금 전입액은 2조3899억원으로 1년전(1조7674억원)과 비교해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증가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증가폭이



컸다. 하나은행의 총당금 전입액은 3620억원으로 전년 동기(2195억원) 대비 64.9% 늘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157억원에서 5124억원으로 62.3%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총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8090

억원으로 전년 동기(6420억원) 대비 26.0% 늘었고, 국민은행은 7065억원으로 5902억원보다 19.7%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

출에 비해 신용위험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적립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p), 전년 동월 대비 0.10%p 상승한 수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상승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은 0.14%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84%로 0.09%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인은 같은 기간 0.12%p, 개인사업자대출은 0.07%p 올랐다.

◆ 환율 변동성, 총당금 압박
업계 안팎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

면서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달러당 1457.7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9월 1391.83원 ▲10월 1423.36원 ▲11월 1457.77원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이날 환율은 1440원을 밑돌고 있지만, 12월 초만해도 평균이 1470원대를 넘었다.

환율 상승은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전반에 간접적인 부담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외화자산과 외화대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자본비율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또 동시에 외화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수입원가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상환 및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企 자금사정 악화 지속… 내년도 ‘먹구름’

중기중앙회,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
중기 40% “올해 자금사정 악화”
내년 차입여건도 악화 전망 우세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일로였던 중소기업 업계의 내년 상황도 암울하다. 고금리로 인한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이자 부담 완화가 기업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나해 대비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는 답변은 40%,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13.2%로 각각 나타났다. ‘악화’가 ‘호전’보다 3배 이상 많은 모습이다. 작년과 ‘비슷’은 46.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과 ‘원·부자재 가격상승’(51.5%)을 주로 꼽은 가운데 ‘인건비 상승’(33%), ‘납품대금 가격 동결 또는 인하’(14.5%)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2026년 ‘전반적 차입 여건’ 전망에 대해 ‘악화’(37%)가 ‘호전’(6.8%)보다 5.5배 가량 많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와 비슷’이라는 답

변도 56.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 자금 사정에 대해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복수응답)으로는 ▲금리부담 완화(38.8%)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11.8%) 등을 꼽았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서도 가장 많은 73.6%가 ‘높은 대출금리’를 지목했다.

중기중앙회이민경정책총괄실장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025년 가장 큰 금융애로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또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로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식품업계 “원가 부담에 수익성 방어 집중”

▶▶ 1면 ‘고환율 쇼크…’서 계속

오뚜기의 경우 올해 3분기 기준 대두유·팜유 등 주요 유지 수입 비용이 톤당 112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해외매출 비중이 11.9%에 불과한 내수 중심 구조인 만큼 환율 부담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도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2년 만에 3배 이상 급등하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룹 차원의 ‘빠빠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역시 내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고환율 국면을 기회로 삼고 있다. 농심은 글로벌 IP 협업과 K팝 스타를 앞세운 마케

팅으로 해외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해외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는 삼양식품은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며 “이미 한 차례 가격 조정을 단행한 만큼 당분간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



광고영상
보러가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퇴직연금 솔루션



비대면·대면 모두 가능한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KB화상상담서비스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전국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50조 원 달성
'25년 7월 7일 기준, DB/DC/IRP 합계, KB국민은행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가입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수수료: (사용자부담금) 개인형IRP: 연0%~0.45%,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연0.21%~0.28%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017호(2025-11-19~2026-11-18)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4765호(2025.11.19), 광고물 유효기간 2025.11.19~2026.10.31.까지

***b KB 국민은행**

李 대통령, 보수인사 포용으로 與 ‘빅텐트 정당’ 면모 부각

‘합리적 보수’ 이해훈·김성식 전 의원
주요 경제정책 담당 기용에 ‘파급’
지방선거 앞두고 정계개편 분석
野, 이 후보 제명… 극우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새해부터 신설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국회의원을 발탁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인선을 ‘파격 발탁’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으로 보는 것은 두 인사 모두 보수, 넓게 보면 중도보수에 속해서다. 이해훈 후보자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명 직전까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다.

김성식 부의장은 재선 의원인데, 정치 입문을 민중당으로 했으나 의원직은

한나라당·국민의당(이후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에서 했다. 즉 이 후보자는 보수계열 인사이며, 김 부의장은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볼 수 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재명 정부 합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오을 국

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도 있고,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을 거쳤던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정책수립을 자문하는 기관 등에 보수 정치인을 기용하면서 이번 인사의 파급력은 더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두 인사는 야권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지점에서 충격을 준 것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빅텐트’는 민주진영이 되는 것이며, 보수 진영은 극단적으로 윤신의 폭이 좁아지게 돼서다.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관직 지명을 받은 이해훈 후보자를 제명 조치한 것 역시 악수(惡手)라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과 통합 관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했는데 원 소속 정당은 ‘제명’으로 응수했

으니, 당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많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사들을 포용하면서, 더 불어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지 않는 ‘빅텐트’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는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만 남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옹호·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 이력이 있어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버르는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임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5개월 앞둔 지방선거… 與野, 서울·경기·부산 등 치열

서울시장에 與 의원 대거 도전장
경기도엔 與 김병주·한준호·추미애
野 한동훈·김은혜·원희룡 등 예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전에 불이 붙으며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고(故)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이후 보궐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해 6년 만에 서울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서울 전·현직 의원이 대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

로 칭찬한바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전현희·김영배·서영교의원과 홍익표·박용진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앞두고 있어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5선(33~34대, 38~39대)에 도전한다. 벌써 4선을 했을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현직에서 경선에 도전한다는 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포인트다. 다만,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 공천률을 당심 70%, 민심 30%로 확정할 경우 극우 당원들이다수 포섭된 당원 구성 상 불리할 수도 있

다는 추측이 나온다.

오 시장 이외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나 의원이 내년 선거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경선이 오 시장과 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도 여당에서 ‘급’있는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며 경선부터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집권 이후 권리당원의 선거 경선 반영 비율을 확대한 결과,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의원이 대표한 세력보다 신흥 지지층인 권리당원의 입김이 세진 것도 경기도지사 선거전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연합하긴 했지만, 친(親)이재명계로 평가받지는 않는 김동연 지사이기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모두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추진을 이끈 6선의 추미애 의원도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선 원외에서 정치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이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지사 출

마도 야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 총선에서 동탄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 시읍에서 당선되고 지난 대선에서 3위 후보로 완주한바 있는 이 후보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전도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유력 부산광역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전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여권에서 전 전 장관의 대안으로 하정우AI미래기획수석 차출설이 나오지만 전 전 장관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5-12-01호]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30번지 일원
-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5,564.6㎡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1) 건축물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2층 ~ 지상 27층)
- 2) 대지면적 : 5,564.6㎡
- 3) 건축면적 : 1,123.7404㎡
- 4) 건축면적 : 28,576.0235㎡
- 5) 건폐율 : 20.34%
- 6) 용적률 : 299.92%
- 7) 높이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 77.72m
-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안의 공지 규정 1.5m 이격
- 9) 특별기구조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39.0368㎡
- 1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782.5376㎡(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	공급면적	비고
공동주택	59	81	59,9550㎡	23,4937㎡	83,4487㎡	25,2431평
	84A	42	84,9810㎡	31,6714㎡	116,6524㎡	35,2872평
	84B	26	84,8562㎡	32,1037㎡	116,9599㎡	35,3802평
	84C	16	84,9233㎡	32,1074㎡	117,0307㎡	35,4016평
	합계	165세대	11,990,5910㎡	4,581,6013㎡	16,572,1923㎡	-
근린			65,8117㎡			비고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 기준이며,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양신청 자격 :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장전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4-1.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5. 분양신청 연장 기간 : 2026년 1월 9일(금)까지 (10월29) / 10:00 ~ 17:00

5-1. 분양신청 장소 : 조합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83번지 2층)

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7.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8. 분양신청안내문 :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9. 이주 및 철거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이주 기간이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2025년 12월 30일]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장 박 회 수 [직인 생략]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국정조사 통해 진상규명 할 것”

각 정당 지도부, 전남 무안 으로

정치권이 29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 전남 무안을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각 정당 지도부는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1년 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 착륙 후, 공항 활주로를 지나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179명의 사망자를 냈다.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후 국회 국정조사에 당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 희생자, 유가족



김민석(왼쪽 두번째) 국무총리와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항 근처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운항 전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는지, 엔진 등 항공

기 기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를 키운 로컬라이저 둔덕 등 무안공항 건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는지 등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특위 조사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조사대상이다. 내년 1월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1월22일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임종룡, 우리금융 3년 더 이끈다… “종합금융 발전시킬 것”

임추위, 차기 회장후보 단독추천
증권업 진출·보험사 인수 등 성과
자회사 집중 육성·종합금융 등 과제
내년 3월 정기주총 거쳐 회장 취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3년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9일 차기 회장 최종후보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2개월 만이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3주 동안 상시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톱리스트 후보자를 확정했으며, 평판조사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이달 초 내부 2명, 외부 2명의 톱리스트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 및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다양한 평가·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우리금융 임추위는 추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 및 보험사 인수 성공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축소 및 재무안정성 개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한 그룹 신뢰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증권·보험업 완성을 위한 자회사 집중 육성 및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체계적 대비와 선도적 지위 선점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제시하고, 임 회장을 이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통찰·도전·혁신·신뢰·소통’

의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모범관행을 반영해 지난 2024년 2월 경영승계규정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전면 개정했고, 이번 승계프로그램도 해당 규정에 맞춰 진행했다”라며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차례의 임추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최종후보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

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전사적인 전환 노력을 가속하고,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0명 중 7명 “내년 집 살것”… 매도는 신중

‘2026 주택시장 전망’ 설문
매입 사유 47% ‘내집마련’ 1위
‘1년내 주택매도 계획 있다’ 46%

내년에도 10명 중 7명이 집을 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주택 매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이지만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응답한 비율 73%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매입 사유를 살펴보면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6.6%로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응답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7.4%)과 ‘임대 수익 목적’(2.9%) 비중은 낮았다.

매입 수요는 중저가 주택에 집중됐다. 주택 매입 비용을 묻는 질문에 ‘3억 원 이하’(31.9%)와 ‘3억 초과~6억 원 이

하’(38.9%) 응답이 가장 많았다. 6억 원 이하 구간 응답이 전체의 70.8%를 차지하는 셈이다. ‘6억 초과~9억 원 이하’는 16.8%, ‘9억 원 초과’는 약 12% 수준에 그쳤다.

매입은 상반기를 중심으로 이른 시점에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26년 1분기’(45.7%)에 매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26년 2분기’(18.3%)까지 합치면 상반기 매입을 고려한 응답이 64%에 달한다.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였는데, 그 이유로 ‘거주·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32.9%)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6.7%)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가격 하락 예상’(13.0%), ‘대출 이자 비용 부담’(12.3%), ‘전반적인 경기 불황’(9.6%) 등이 뒤를 이었다.

매도는 관망세를 보였다.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조사 당시 54.8%까지 오른 것과 비교해 낮아졌다. 상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매도를 고려했던 일부 수요가 가격 흐름을 지켜보는 것으

로 풀이된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주 지역 이동’(34.8%), ‘면적 확대·축소 이동’(17.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수요 목적이 주를 이루는 한편 ‘대출 이자 부담’(14.3%), ‘차익 실현 및 투자처 변경’(10.7%) 등 가격 흐름과 자금여건을 고려한 경우도 있었다.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실거주 목적(1가구 1주택)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55.6%로 가장 많았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서’(11.5%),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10.7%) 등 가격 흐름을 고려해 매도를 서두르지 않는 관망 성향도 확인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공급 여력이 제한되고 수요가 검증된 핵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부담이 남아 있거나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며 “금리와 환율, 대출 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제9기 SGI드림파트너스 참가자들이 지난 3월 출범식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누적봉사 1만1400시간 ‘상생’

SGI 드림파트너스, 참여인원 2219명

SGI서울보증이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29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범한 SGI 드림파트너스는 지금까지 누계 참여인원 2219명, 누계 봉사 시간 1만1400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제9기 봉사단 역시 사원부터 부서장까지 자율적으로 모인 40명의 봉사단원들이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실천 중이다. SGI 드림파트너스는

대학생 기후변화 서포터즈 ‘SGI 유스 플러스’와 함께 지난 4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전나무 80여 그루를 심으며 도시숲 조성하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6월에는 살미도 해변정화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약 270kg을 수거하며 해양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분야에서는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제빵 봉사를 통해 직접 만든 빵을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했으며, 10월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공원 인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11월에는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은행권 대출금리 3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

한은, 11월 4.15%로 0.13%p 상승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 가운데,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가 연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p)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4.15%로 같은 기간 0.13%p 올랐다.

예금 측면에서는 순수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를 포함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수신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2.78%로 0.22%p 상승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은 2.90%로 같은 기간 0.29%p 올랐다.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먼저, 기업대출은 4.10%로 전월 대비 0.14%p 상승했다. 단기시장금리 상승으로 대기업(+0.11%p)과 중소기업(+0.18%p)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단기시장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CD(91일물)금리는 직전 달(-0.01%p)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달(+0.14%p) 상승세로 전환했다. 은행채(AA) 역시 3개월~5년물 금리가 0.16~0.33%p씩 상승하면서 조달금리 부담을 키웠고,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은 4.32%p로 같은 기간 0.08%p 상승했다.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한 차례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반신용대출(5.46%)이 0.27%p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주택담보대출(4.17%)이 0.19%p, 전세자금대출(3.90%)이 0.12%p 상승했다. /안재선 기자

하나은행, 군 장병 맞춤형 ‘나라사랑카드’

군마트·CU편의점 등 할인 혜택

하나은행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하나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 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하나나라사랑카드는 군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밀착형 체크카드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우선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취

대 30%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를 비롯해 ▲CU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군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시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 푸드 등의 외식 브랜드 ▲PC방 ▲카페 ▲숙박업 등의 업종은 물론 ▲어학시험 ▲서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美 투자 앞둔 현대제철… 희망퇴직·자산매각 ‘몸집 줄이기’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사업재편 속도
투자와 직접적 연결 해석엔 선 그어
업계, 재무여력 확보 행보 분석도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 추진을 앞두고 자산 정리와 비용 절감 등 사업재편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출자금은 내부 현금흐름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와 자회사 조정을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지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국면을 감안한 재무 여력 확보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틸파이프는 지난 19~26일 계약·과점직을 제외한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위로금은 정년까지 남은 잔여 기간 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인정 한도는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학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실적 악화 국면에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서의 비용 절감·경쟁력 강화로 본다. 현대스틸파이프는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영업손실 31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순이익 110억원을 냈지만 관세로 강관 수출 채산성이 떨어져 하반기 실적은 재위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비용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회사는 측은 투자와 인력·자회사 조정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관련 영향은 회계 처리와 2025년 결산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미국 전기로 제철소 총투자비는 58억 달러(약 8조5600억원)로 자기자본 29억

달러(50%)와 외부차입 29억달러(50%)로 조달한다. 자기자본 출자 구조는 현대제철 50%(14억6000만달러·약 2조1500억원), 포스코 20%(5억8000만달러), 현대차 15%(4억4000만달러), 기아 15%(4억4000만달러)다.대신증권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지난해 연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조7800억원, 지난해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현대비앤지스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보유 지분 620만주(41.12%) 중 150만7881주를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에게 넘겼으며, 처분 금액은 232억원이다. 회사는 당시 유동성 확보 목적의 주식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이와 함께 자회사 현대IFC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베일리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으로 매각가는 2000억~25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포항 2공장 일부 설비 정리,

인천공장 스테인리스(STS) 설비 매각 등도 병행하며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대스틸파이프 역시 자원 마련을 위한 매각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도 비용 구조를 정리해 매각 협상 여지를 높이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포항공장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까지 정리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 투자 자원 마련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 목적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차입을 크게 늘려 투자하는 방식도 부담인 만큼 자산 정리와 비용 절감을 병행하는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부채 상환을 우선하는 등 재무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뒀다”며 “대규모 해외 투자 국면에서 재무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현대차, 내년 美 진출 40주년… 품질·안전 앞세워 재도약

최첨단 제조거점 ‘HMGMA’ 준공
“정의선 리더십 토대로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가 내년 미국 진출 40주년을 앞두고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품질과 안전을 앞세운 경쟁력 강화와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986년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며 자동차 본고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내년이면 미국 시장 진출 40주년을 맞는다. 미국을 핵심 무대로 삼아 현지 전략을 다듬어온 현대차는 품질·안전·성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89만 6000여 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연간 최다 판매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차량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고, 현지 생산 확대와 판매 믹스 조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품질·안전 경쟁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올해 충돌 안전 평가에서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의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그룹은 총 21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와 TSP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제이디피워의 ‘2025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도 글로벌 17개 자동차그룹 가운데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거두며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위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을 글로벌 자동차 산업



HMGMA 차체 공장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모습.

/현대차그룹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됐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8월 수상 당시 “정주영 창업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안전·연구개발에 대한 신념이 현대차그룹 경영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최첨단 제조 혁신 거점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며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연 12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2028년까지 자동차와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

에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난 10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종료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내년 15% 수준의 관세 부담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 자율주행 기술 경쟁 등 복합적인 과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 생산 확대와 축적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을 토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에어로,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만든다

항우연과 1033억 규모 계약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함께 오는 2032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의 추진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30여 년간 축적한 우주비행체 추진시스템의 개발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달 탐사 능력 확

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4일 항우연과 1033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설계는 항우연에서 수행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는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착륙용 엔진과 자세제어 추력기의 제작 및 시험을 포함, 추진시스템 전체 조립 및 시험을 담당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94년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1호)을 시작으로 32년간 차세대중형위성,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3호), 달 궤도선 ‘다누리’ 등에 탑재되는 우주비행체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개발에 성

공하면 해당 기술과 인프라를 중대형 달 탐사선, 화성 궤도선 및 탐사선 등 향후 추진될 국가 우주탐사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산연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 개발 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우주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CES ‘C랩 전시관’ 마련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C랩’ 스타트업 15개사가 내년 1월부터 열리는 ‘CES 2026’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하고 15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C랩 스타트업 15개사는 ▲삼성전자가 직접 외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C랩 아웃사이드’ 8개 ▲삼성전자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육성한 스타트업 1개 ▲임직원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 2개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삼성금융 C랩 아웃사이드’ 4개로 구성된다.

/차현정 기자

세아베스틸 ZWTL ‘플래티넘’ 인증

세아베스틸이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글로벌 안전인증 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ZWTL)’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ZWTL 인증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비율에 따라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급으로 나뉘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심사에서 최종 재활용률 99.7%를 기록했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플래티넘 등급 획득은 세아베스틸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중기중앙회·중견기업聯, 신년사로 2026년 경제대응 방향 제시

“성장사다리 복원의 원년…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간다”

AI 전환·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미래 경쟁력 제고 과제도 강조

김기문 “복합위기 극복 위한
성장동력 만들어야 할 전환점”

최진식 “성장잠재력 회복 통해
경제 재도약 강고한 토대 구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중소·중견기업계의 내년 최대 화두는 ‘성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원년으로 2026년을 꼽으면서다. 이를 위해 업계는 반드시 가야할 곳으로 ‘글로벌’을 지목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내놓은 새해 신년사에서 “2026년은 대한민국이 당연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온 국민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힘을 모아 위기 극복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계업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국민적 에너지가 더 활기 있게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의 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강고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활용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장환경 조성 ▲끊어진 소상공인과 소기업 성장사

리 복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개혁과 노동 구조 혁신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년 화두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중기업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늘어나기가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약 830만개 기업 중 소상공인은 95.2%인 791만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4.7%인 약 39만개에 그치고 있다.

최 회장도 “건강한 산업생태계에 터잡은 기업의 전향적인 도전을 이끌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실천의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

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기는 정부 정책을 의식해 “몸이 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적 유지하는 방식 모두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련은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 미중 패권을 넘어서는 전략을 모색한 상태다.

김 회장 역시 “830만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9만6000개에 불과하다”면서 “유망 소비재 중심 수출 지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TIPS 체계 ‘창업-성장-글로벌’ 고도화

(스케일업 팁스)

중기부, 스케일업 TIPS 운영사 50곳 모집
민간투자 연계 스타트업 단계별 지원
지역 투자사 우대, 물량절반 지역 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할 민간 투자사 50곳을 새로 모집한다. 중기부는 내달 30일까지 ‘스케일업 팁스(TIPS) 운영사(일반)’를 모집하고 지역 거점 투자사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사가 기술 기업의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 기업에 정부 R&D 출연금의 10배에 육박하는 21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끌어왔고 48개사가 기업공개

(IPO)에 성공했다. TIPS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TIPS 운영사 24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기부는 TIPS를 ‘창업-성장-글로벌’ 체계로 고도화하고 스케일업 TIPS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렸다. 글로벌 TIPS도 100개를 신설했다.

TIPS 개편에 발맞춰 스케일업 이후 단계를 발굴하는 스케일업 TIPS 운영사를 약 80개까지 확대한다. R&D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사도 투자사 단위의 일반 운영사와 컨소시엄 단위의 특화 운영사로 나눈다.

일반운영사를 모집하는 이번 공고에서 중기부는 투자 실적(포트폴리오), 투자재원, 기업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50개사를 선정한다. 선발된 운영사는 스케일업 TIPS 및 글로벌 TIPS에 최대 6

년간 참여할 수 있고 사업화 전략기획, 특허 분석, 시장 조사 등의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양성을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방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에 가점 3점을 주고 지역 펀드 운용 여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내년 지원 물량의 50%를 지역 기업에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역량 있는 투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내달 6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TIPS타운 S1 및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올해 인재 총 3587명 채용 연계

HR브릿지 등 운영 성과 ‘톡톡’

벤처기업협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벤처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587명의 인재를 채용 연계했다. 956명을 대상으로 신입·재직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채용 연계 인원은 78%, 교육 인원은 57% 각각 증가했다.

29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인재 양성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채용박람회 ▲공동채용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기업 홍보영상 제작 ▲HR브릿지 운영 ▲HR리더스포럼 등 인재 육성부터 채용까지 전 주기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벤처협회는 그동안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통합적인 인재 육성·채용 연계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 애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HR브릿지’는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 수요를 기반으로 전용 채용공고를 운영하고 전문 HR 매니저가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무료 채용연계 서비스다.

올해 7월 출범 이후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397명의 적합인재를 선별 및 매칭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공개채용 대비 채용 기간 단축과 인재 적합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벤처협회는 2026년 AI·SW 핵심 인재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AI·SW 교육 전문기관 구름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벤처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AI·SW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시장서 산 물품 가정까지 배송”

상인연합회와 상생 모델 구축

CJ대한통운이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전통시장서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개별 가정에 배송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물류 상생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내 배송물량이 모이는 공동배송센터를 통해 소비자들 이 구매한 상품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만 하면 각 상점에서 QR코드

방식으로 상품을 접수하고 이후 공동배송센터를 통해 집화, 배송까지 일괄 처리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협소한 주차장 등으로 인해 상품구매 후 직접 들고 다니며 집까지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배송센터를 통해 이런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소비자 접근 편의성은 높아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택배 기사 입장에서선 기존에는 소량 택배 물량 처리를 위해 분산된 점포를 돌아다녔지만 앞으로는 공동배송센터 위주로 방문하기에 동선이 짧아지고 물류 효율화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본부장(왼쪽)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전통시장 물류 상생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이와 함께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우수시장박람회나 각종 지역 특산물 박람회 등에도 CJ대한통운이 물류사로 나서 상품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중기부, 내년 가점확대 등 혜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

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T, ‘명백 범실’로 전원 위약금 면제 LG U+, ‘흔적 지우기’에 경찰수사

과기부,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투명한 공개·엄중처벌 원칙 진행

KT, 펌토셀 관리 부실로 위험 노출
LG U+, OS 초기화 등에 조사 난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T의 보안 관리 부실을 ‘명백한 범실’로 규정하고 이용자 전원에게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 9월 내부망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접속하면서 침해사고가 시작돼 이번 사고로 이용자 2만 2000명의 식별번호와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400여명은 약 3억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펌토셀(소형 기지국)’ 관리였다. KT는 생산부터 납품까지 보안 전판을 외주에 맡긴 채 방치했다. 이로 인해 불법 펌토셀이 언제든지 내부망에 접속해 통신 트래픽을 캡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종단 암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기기를 통과하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탈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 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과기정통부는 KT 전체 서버 3만 3000대 중 94대에서 루트킷을 포함한 악성코드 103종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의 주된 의무”라며 “KT가 펌토셀 관리 부실로 이용자 전체를 위협에 노출시킨 만큼, 이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법률 자문을 받은 5개 로펌 중 대부분도 전체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지난 8월 25일 시작했으나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보안 전문지를 통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LG유플러스는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조치가 침해 사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OS 초기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통신망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KT에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자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명령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사는 투명한 공개와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진행됐다”며 “통신사가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연말연시 네트워크 특별 소통대책

네트워크 상황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인파 밀집 지역에 이동기지국 배치
5G·LTE 기지국 사전 품질 측정도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강원 강릉시 정동진 인근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상되는 해남·해동이 명소, 타종식 행사 지역에는 이동기지국을 배치했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

·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5G 및 LTE 기지국은 사전 점검을 통해 품질을 측정했으며, 통신량 급증에 대비해 AI 기반 자동 네트워크 최적화 체계를 구축했다. 중요 거점지역에는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이동통신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U+tv와 OTT 동영상 시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캐시서버 용량 증설 등을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GPU 확보사업’ 인프라 구축 순항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기반 진행

카카오가 지난 8월 정부 주도 ‘GPU 확보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최신 GPU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GPU 확보 사업은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GPU를 민간에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다. 카카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424장

의 GPU를 확보·구축하고, 이를 5년간 위탁 운영하며 국내 AI 연구 및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기반으로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체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역량과 GPU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구축 일정을 앞당겨, 현재 전체 할당량의 약

84%에 해당하는 255노드(GPU 2040장)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당초 제출했던 연내 구축 목표치인 64노드 대비 4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안산은 고집적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고성능 GPU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뜨거운 공기를 격리해 냉각 장치로 바로 순환시키는 밀폐 시스템인 ‘열복도 밀폐시스템’을 적용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KT엠모바일, eSIM 데이터 로밍서비스 선포

70개국서 ‘mobi’ 사용 가능

KT엠모바일이 eSIM 기반 데이터 로밍 서비스 ‘mobi(모비)’를 출시하고 해외 데이터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29일 밝혔다.

‘mobi’는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eSIM을 통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용 앱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해 eSIM을 등록하면 일본·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와 미국, 유럽 등 약 70개국에서 현지 도착 즉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SIM을 지원하는 단말이라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기존 유심을 유지한 채 데이터만 eSIM으로 설정할 수 있어 통화와 문자는 국내 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특징은 출국 전 eSIM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국 전 개통 체크’ 기능이다. 이를 통해 현지 도착 후 개통 문제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 eSIM 서비스의 불편을 개선했다. 해당 기능은 홍콩·마카오와 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공되며, 제외 지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



국내 알뜰폰 1위 사업자 KT엠모바일이 eSIM 데이터 로밍 ‘mobi(모비)’를 출시하며 글로벌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KT엠모바일

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고객센터를 운영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한다. 앱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와 이메일만으로 구매와 개통이 가능하며, 데이터 부족 시 실시간 충전 기능과 eSIM 상품 선물하기 기능도 제공한다.

‘mobi’는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eSIM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스마트스토어 구매 고객에게는 eSIM 활성화 코드가 구매 직후 안내된다. /김서현 기자

KT, 청소년 대상 AI역량·윤리교육 확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KT가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AI역량 및 AI윤리 교육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커리큘럼은 AI윤리의 개념과 핵심 가치,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형 학습 요소를 포함했다.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는 KT의 AI윤리 정책과 관련 프

로세스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의 자문이 반영됐다.

KT는 본격적인 교육 확대에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지역 4개 학교, 약 28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점검했다.

이번 교육은 KT가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 ‘디지털 포 굿(Digital for Goo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T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2022년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운영해왔다.

/김서현 기자

몽골에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

카카오엔터프라이즈-몽골 과기대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몽골 국립과학교육대학교에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이카(KOICA)와 함께 추진 중인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4년부터 3년간 몽골에서 클라우드 인재 양성 교육과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몽골 과기대는 지난 6월부터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환경 개발에 착수했다. 엣지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인근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로,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몽골 과기대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치하고 테스트베드 환경의 설계와 구축, 정상 동작 검증을 완료했다. 구축 과정에서는 엣지 클라우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기술 점검과 협업 회의를 통해 개발을 진행했다.

몽골 과기대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물리 인프라 구축과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한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몽골 내 엣지 클라우드 실습 및 연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양국 간 클라우드 기술 교류도 확대됐다.

내년에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몽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미래에셋, ETF 순자산 300조 돌파… 톱티어 운용사 도약

박현주 회장, 글로벌 확장 전략 주도
지역별·테마별 차별화 상품 선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38.8%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일찍부터 강조해온 글로벌 ETF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자산이 3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확장 모델이 하나의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글로벌 ETF 순자산이 총 3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6일 기준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총 운용자산은 30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ETF 시장 전체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며,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자산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세 배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8.8%로, 같은 기간 전 세계 ETF 시장 평균 성장률



미래에셋 2025 ETF Rally.

/미래에셋자산운용

을 크게 상회했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715개의 ET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 집중해온 기존 글로벌 ETF 운용사들과 달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지역별·테마별로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온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ETF 확장의 출발점은 2011년 홍콩증권거래소 ETF 상장이었다. 이후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글로벌 전략에 따라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현 Global X Canada),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현 Glo

bal X Australia)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글로벌 ETF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지 법인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Global X US는 인수 당시 8조원이던 운용자산이 26일 기준 113조원으로 늘며 약 14배 성장했다. Global X Canada 역시 4조원에서 52조원으로 확대되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호주에서는 ETF Securities 인수 이후 Global X로 리브랜딩하며 운용자산을 4조원에서 15조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ETF 시장에서 Global X EU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20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운용자산 8조원을 넘어섰다. 은 관련 ETF가 빠르게 성장하며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Global X Japan 역시 운용자산 6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에서는 TIGER ETF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TIGER ETF의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은 11월 말 기준 37조7000억원으로, 개인 투자자 점유율은 약 40%에 달한다.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으로 49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보유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원자재와 혁신 성장

테마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금·은 가격 강세에 힘입어 Global X US와 유럽, 호주 법인의 원자재 ETF에 자금이 몰렸고, 방산·AI 등 혁신 성장 테마 ETF 역시 투자자 관심을 받았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경영 부문 총괄 대표는 “글로벌 각 지역의 현지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결합해 ETF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플랫폼을 고도화해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닥 거래 급증… 내년 최대 1100p 전망

12월 일평균 거래대금 11.5조 집계
정부 정책수혜 등 시장 기대감 고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치돈이 물리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열기는 2023년 이차전지 테마가 증시를 달궜던 당시를 떠올리게 하며, 거래대금과 개인투자자 수급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 ‘천스닥’ 시대 임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닥은 25.98% 상승했다. ‘천스닥’ (코스피 지수 1000)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사자’에 나선 덕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4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2023년 2차전지 열풍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 기대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자 매매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지난 9월 10일 이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량주들, 전망 있는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 십원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은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거나 주가 조작이 많다거나 웬만하면 퇴출이 안 돼 종목이 너무 많다는 불신이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실력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다 저평가된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금 운용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특례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가 코스닥 디스 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최대 1100포인트까지 닿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투자자 신뢰 확보·대표종목 부재 등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코스닥 내 진작 퇴출되어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왔다는 게 문제다. 또 코스닥은 단타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1~10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율은 8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개인 투자자 비율은 약 68.6%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달 개인투자자는 코스닥에서 1조198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6084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들은 코스닥 하락장에도 대거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했던 지난 16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최고치인 4671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하락을 떠받쳤다.

시장을 이끌만 한 종목도 없다. 그동안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투자할 종목이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출가’ 하는 일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웨이, 포스코D X 등은 모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최근에는 코스닥대장주 알테오젠이 유가증권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 조직개편 실시… 소비자보호 ‘방점’

연금·기업금융·디지털 중심 사업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KB증권의 조직 재편이 본격화됐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금·기업금융·디지털을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수익성과 책임을 함께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 사업부문별 핵심 Biz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내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보안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보호본부 직속 보안 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롭게 편제했다.

WM부문은 비대면 채널 중심의 체질 전환을 통해 고객자산 성장 기반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WM부문 핵심 성장동력인 연금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적·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연금그룹을 신설하고, 예

하에 개인연금 및 법인연금 담당 부서를 편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TAX솔루션 부를 WM영업본부의 Family Office부로 이동해 UHNW(초고액자산가) 고객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IB부문은 생산적 금융 중심의 Biz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중견·중소 기업금융 Biz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2본부를 확대 재편했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PE신기사본부를 PE·성장투자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본부 직속 생산적금융추진팀을 신설했다. 다만, 부동산금융 조직은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 재편했다.

S&T부문은 운용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트레이딩그룹과 자본시장영업본부를 자본시장그룹으로 통합 재편했다. 또한, 기존 IB부문 내 발행어음 운용조직은 종합금융본부 신설을 통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운용 체계의 안정성과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했다.

/허정윤 기자

719만명 ISA 가입… ‘투자중개형’ 85% 차지

〈11월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출시 9년 8개월 만에 7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지난 11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6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100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1만명이 ISA에 새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 중심의 신탁형과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맡는 일임형 가입자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허정윤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7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축축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 2025. 12. 31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김지윤,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예매처 티켓링크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사상 첫 7000억달러 수출 돌파 제조업·신산업 동반성장 결실

산업부·관세청, 잠정집계 발표

美 관세·보호무역 속 이론 성과
수출 호조에 외국인 투자 확대
반도체·자동차 등 회복세 뚜렷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7000억달러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2025년 12월 29일 13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첫 수출 실적 집계 이후 77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수출 6000억달러는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이번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도달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에너지 수입은 1174억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7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상반기 부진으로 출발했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659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1~11월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660억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고, 선박 수출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바이오시밀러 품목 확대와 위탁생산(CMO) 수주 증가로 호조를 이어갔다.

K-푸드와 K-뷰티, 전기기기 등 소비재·유망 품목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수출 시장 역시 미·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가 진전됐다. 1~11월 기

준 중국과 미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비중은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도 9월까지 수출액과 수출 기업 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수출 호조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연간 외국인직접투자가 3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지방 중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약가구에 등유·LPG '맞춤형 복지' 확대

기후부, 에너지바우처 최대 51만4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현행 대비 14만7000원 높아진다.

기후부는 등유·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평균 36만7000원 지원하던 금액을 51만4000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방식은 추가 지원금액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추가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동일하게 내년 5월25일까지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에너지공단이 개

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등유·LPG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 할인 혜택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고향사랑기부' 임직원 참여 독려

농촌·농업인 지원 기부 확산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시 적립된 기부금이 지자체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또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 농협의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커피 등을 증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역별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농협 앱(올원뱅크, 쿠팡뱅크), 영업점 사이니지,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농협 농업농촌지원본부의 이광수 상무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라며 "세액공제 혜택과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정위, 온투업자 34곳 전수 점검
위험 전가·과도한 면책 조항 다수 확인
투자자 책임 떠넘긴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

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만·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인력 2년 유지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학급 수 급감 따른 행정 공백 완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

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안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현진 기자 ihj@

“2030 여성에 사랑받는 ‘김재구’” 정보·일상 콘텐츠로 공감 이끌다

지그재그, 자체 캐릭터 활용 소통
호응에 힘입어 별도 계정 운영
올해 누적 조회수, 전년比 600% ↑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자체 캐릭터 ‘김재구’를 활용한 SNS 콘텐츠로 2030 여성 고객과의 정서적 접점을 넓히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구(@kimzaegu)’는 당초 지그재그 공식 SNS 계정의 콘텐츠 라인업 중 하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들의 꾸준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9월부터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다. 커머스 플랫폼이 운영하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홍보나 할인 정보 전달보다는, 지그재그의 주 고객층인 2030 여성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김재구 계정은 올해 누적 조회수 1630만회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00% 이상 급성장했다. 아직 대형 캐릭터 IP처럼 폭발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단계는 아니지만, 패션 플랫폼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고객 공감형 캐릭터’로서 지속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숏폼 콘텐츠가 채널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 7월 업로드된 직장인 공감 소재의 ‘김재구 출근송’은 영상과 음원 모두 AI 도구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콘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에서 김재구를 활용한 고객 이벤트를 열고 있다.

/지그재그

텐츠로, 단기간에 조회수 52만 회를 돌파하며 계정 성장의 전환점이 됐다. 이 밖에도 ‘내가 다닐 회사 고르기’, ‘함께 일할 직원 고르기’ 등 AI로 제작한 공감형 릴스 11편의 누적 조회수는 현재 700만회를 넘어섰다.

지그재그는 김재구에게 ‘2년 차 직장인’이라는 페르소나를 설정해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이 실제로 겪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면접 합격 팁, 사회 초년생 실수담 같은 정보성 콘텐츠부터 취준생 명절 스트레스 등 2030 고객의 일상적인 고민과 걱정거리를 다룬 심리툰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러한 콘텐츠가 자연스러운 공감을 얻으며 일부 게시물은 조회수 30만회를 넘기는 등 가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점 브랜드와의 협업 및 굿즈 제작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지그재그는 입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와 협업해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인스타그램 톤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후 김재구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키팅 굿즈도 선보였다. 재구 키팅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약 10만명의 이용자에게도 달했으며, 뷰티 카테고리의 X(구 트위터) 이벤트에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시도의 발판이 됐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CRM(고객 관계 관리) 영역에서도 김재구 캐릭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지그재그는 올해 8월부터 ‘재구의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CRM 메시지를 운영 중이다. 직접적인 구매 유도보다는 친근한 말투와 캐릭터 서사를 앞세워 고객과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12월 기준 정보성 친구톡 알림 신청자가 약 19만명을 달성했으며, 재구의 선물 콘셉트로 전환한 후 4개월간 누적 참여자 수는 약 87만명을 기록하는 등 캐릭터 활용이 고객 참여를 확장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패션 플랫폼은 물론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도 캐릭터를 통해 고객의 감정과 일상을 다루는 사례는 드물다”며 “지그재그의 대표 캐릭터 ‘김재구’가 고객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을 넘어, 더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GS25가 가맹 경영주를 위한 ‘2026년 비상생지원제도’를 발표했다.

/GS25

GS25, 가맹점주 수익성·복지 강화 지원

‘내년 新 비상생지원제도’ 확정

전망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전국경영주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가맹점의 수익성 증대와 경영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2026년 신(新) 비상생지원제도’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생안은 ▲영업 지원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경영주 복지 프로그램 확대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와의 연계 시너지 창출을 핵심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질적인 수익 지원 강화다. GS25는 ‘재고처리 한도’를 점포당 연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상품의 생애 주기가 짧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다. 가맹점은 유행이 지난 상품을 부담 없이 반품하고 인기 상품 위주로 매대를 재편할 수 있어 수익 중심의 상품기획(MD) 구성이 용이해질

특히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이 차별화 신상품 도입과 상권별 핵심 상품 관리에 힘을 경우, ‘구색강화 인센티브(연90만 원)’와 ‘수익개선 인센티브(연 120만 원)’를 더해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판매 성과에 따라 한도 없이 지급되는 ‘판매이익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경영주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는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GS25는 전문 헬스케어 기업과 연계해 전 가맹경영주에게 ▲의료진 건강 상담 ▲건강검진 컨설팅 ▲대형병원 진료 예약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경영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현대벤디스, 현대百 편입 후 ‘폭풍 성장’

올해 연간 거래액 1800억 돌파 전망

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 유입이 늘면서 전체 거래액 중 대기업 비중이 2022년 21.6%에서 올해 40.4%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현대백화점·아울렛 식음료 매장에서 식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등 계열사 상품을 연계한 점도 경쟁력을 높였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현대벤디스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현대벤디스는 내년 거래액 목표를 2000억원으로 잡고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기업 메시징 솔루션 ‘문자대장’, 퀵서비스 ‘퀵대장’ 등 다양한 B2B 솔루션을 결합해 ‘윈스톱 복지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손종욱 기자

국내 모바일 식권 1위 기업 현대벤디스가 현대백화점그룹 편입 3년 만에 거래액이 두 배로 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벤디스의 올해 연간 거래액은 18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룹 피인수 전인 2022년 거래액 976억원과 비교해 약 2배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고객사 수는 1700여개에서 3300여개로, 식권 사용이 가능한 제휴사 또한 3만3000여곳에서 6만5000여곳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고속 성장은 그룹 편입에 따른 대외 신뢰도 상승과 계열사 간 시너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대

롯데마트·슈퍼, ‘하임X스텔라이브’ 기획팩

버추얼 크리에이터 그룹과 협업
내일 오후 4시 온라인 선판매 시작

롯데마트·슈퍼는 오는 31일 버추얼 크리에이터 그룹 스텔라이브와 협업한 ‘하임X스텔라이브’ 기획팩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크라운제과의 대표 제품인 ‘화이트하임’과 ‘초코하임’에 스텔라이브 3기 멤버인 ‘클리셰’의 IP(지식재산권)를 입힌 협업 제품이다.

앞서 지난 9월 양사가 선보인 1차 협업 상품 ‘쿠크다스X스텔라이브’는 출시 직후 온라인 물량이 3분 만에 매진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픈런’이 벌어

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차 협업은 당시 팬덤 사이에서 “스텔라이브 이미지와 하임이 잘 어울린다”며 출시 요청이 쇄도했던 점을 반영해 성사됐다.

기획팩은 화이트하임(284g)과 초코하임(284g), 랜덤 포토카드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만1990원이다. 포토카드는 화이트와 초코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총 16종으로 준비됐으며, 일반 카드와 스페셜 카드가 무작위로 포함돼 수집 재미를 높였다.

판매는 온·오프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31일 오후 4시 롯데마트 앱 ‘롯데마트제타(ZETTA)’와 롯데온에

서 온라인 선판매가 시작되며, 오프라인 판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193개 점포에서 이뤄진다.

롯데마트는 팬들을 위한 체험 요소도 강화했다. 제타플러스 서울역점과 중계점 등 전국 20개 주요 점포에 스텔라이브 멤버 등신대를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해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슈퍼 이화석 스낵&디저트 팀 상품기획자는 “1차 협업 당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팬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속작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IP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CU, 내년부터 ‘롯데글로벌’로 택배사 통일

편의점 택배 수요 맞춰 효율성 강화

CU가 편의점 택배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송 파트너사를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일원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편의점 택배 수요에 맞춰 구간 서비스별로 분산돼 있던 배송 구조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CU의 택배 이용 건수 신장률은 지난해 12.7%에 이어 올해(1~11월)도 9.1%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송사 통합의 핵심은 저렴한 운임으

로 인기인 ‘반값택배(구 알뜰택배)’의 속도 혁신이다. 기존 CU 자체 물류망 대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서, 접수 후 최대 6일이 걸리던 배송 기간이 일반 택배와 동일한 수준인 최대 3영업일로 대폭 단축된다.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만 운임은 그대로 유지한다. CU는 반값택배 가격을 500g 이하 기준 1800원(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손종욱 기자



세븐일레본이 원두와 컵 패키지를 전면 리뉴얼한 ‘올 뉴 세븐카페’를 선보인다. /세븐일레본

한 ‘팀 MD’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소비자 설문조사와 산지 계약, 100회 이상의 로스팅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맛을 구현해냈다. /손종욱 기자

원두, 컵 패키지 변경

세븐일레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1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원두와 컵 패키지를 전면 리뉴얼한 ‘올 뉴(All New) 세븐카페’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최근 스페셜티 커피 대중화로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와 고소하고 묵직한 바디감을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세븐카페는 2015년 업계 최초로 론칭된 이후 편의점 원두커피 시장을 이끌어온 세븐일레본의 대표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올 뉴 세븐카페’는 세븐일레본과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웰푸드 3사가 결성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제약바이오기업 CEO 설문조사

“40%대 조정시 영업익 반토막… 산업경쟁력 악화 불 보듯”

59개 기업 年 매출손실 1.2조 추산
연구개발비 평균 25% 축소 전망
중견기업 등 9%대 인원감축 응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59개사가 회신했다.

설문은 우선, ‘기등재 약제 중 이번에 우선적으로 조정되는 대상은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인데, 조정비율 53.55% → 40%대 변화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귀사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수 및 피해액’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크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약가인하 예상 품목은 4866개로 이 중 중견기업 제품이 3653개(75.1%)로 가장 많다.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은 각각 793개(16.3%), 420개(8.6%)다.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51.8% 수준이다. 중견기업과 대형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각각 55.6%, 54.5%로 평균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에서는 23.9%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된다.

설문에서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조 6880억원에서 2026년 4270억원 줄어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축소율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 26.5%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대형기업은 16.5%로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은 각

각 21.6%, 26.9%다. 이는 미인증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위축이 인증기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설비투자는 2024년 6345억원에서 2026년 2030억원 줄어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견기업과 대형기업에서는 각각 28.7%, 10.3%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인데 응답한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감축 인원은 중견기업 1326명,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이다. 감축 인원수를 가장 크게 기록한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 비율은 12.3%로 중소기업 6%의 2배를 뛰어 넘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차질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게 된다.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1,2,3순위 등 복수응답)으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 중단’이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 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설문에 응한 59개 기업은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 7개사, 연매출 1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42개사,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다. 이 중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은 21곳(35.6%), 미인증 기업은 38곳(64.4%)으로 분류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BBQ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 카자흐스탄에 마스터프랜차이즈(MF, Master Franchise)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그룹 카자흐스탄 MF 계약 체결

중앙아시아 외식시장 본격 공략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 카자흐스탄에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외식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마스터프랜차이즈를 체결한 레스토파크(Restopark KZLLP) 그룹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중심으로 외식·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요리를 선보이는 멀티 콘셉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향후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매장을 선보인 뒤, 현지 소비자 인지도와 브랜드 포지셔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BBQ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타입 매장을 도입하고, 쇼핑몰과 핵심 소비 상권을 중심으로 출점을 확대해 가맹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 주요 도시에서의 플래그십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인접 국가로의 사업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다중항체 항암 신약개발 속도

‘CT-P72/ABP-102’ FDA 1상 IND 승인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지속 확장 방침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항암 신약 ‘CT-P72/ABP-102’ 임상 1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CT-P72/ABP-102는 다중 항체 면역항암제다.

세포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와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 CD3를 동시에 표적한다. HER2를 많이 발현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면서, HER2를 적게 발현하는 정상세포에서는 불필요한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또 중앙세포와 면세포를 연결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과정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셀트리온

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해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을 최소화하도록 조절됐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임상에서 ‘개별 내 최고 약물’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번 IND 승인 이후 임상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중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항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장할 방침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후보물질 ‘CT-P70’은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했고 지난 4일에는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도 확보했다. CT-P71, CT-P72, CT-P73 등 후속 ADC·다중항체 기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2/ABP-102는 전임상 단계에서 항체 결합력 조절을 통해 치료지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다중항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이라며 “이번 IND 승인을 바탕으로 다중항체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신제품 출시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신제품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사진)’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항노화, 저속 노화, 피부 장수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차세대 크림이다.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 아티카 정량추출물(테카)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한 ‘표적·테카’ 성분을 5만 ppm 함유한다. 이마, 눈가, 팔자, 입가, 목 등 안면 노화 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 한층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준다.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는 오는 1월 4일 CJ홈쇼핑에서 공개된 후 동국제약 공식몰 DK SHOP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온·오프라인 AI 서비스 강화

‘스킨스캔’ 중심 옴니채널 전략 고도화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스킨스캔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뷰티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킨스캔’은 올리브영 매장 내 체험형 뷰티 프로그램이다. 전문 기기로서 피부 유형, 색소 침착, 피지, 모공, 주름 등을 정밀 측정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피부 상태를 진단해 준다.

서울 강남·성수·홍대 등 수도권 핵심 상권을 포함해 60여 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이용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

올리브영은 이번에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프라인 매장의 스킨스캔이 분석한 결과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 피부 상태에 적합한 추천 상품, 성분, 스킨케어법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피부 그래프를 통해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고객의 피부 평균값과 비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기기가 설치된 매장에서 주기적으로 피부

를 측정하고 변화를 추적하며 모바일에서는 지속적인 피부 관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스킨스캔 운영 매장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피 진단 ‘스킨스캔 스칼프’, 피부 톤 진단 ‘퍼스널컬러’ 등의 뷰티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 매장만의 체험형 뷰티 케어가 온라인몰과 시너지를 내며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옴니채널은 물론,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유니파이드(Unified) 뷰티 커머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국P&G ‘오랄비’ 연말결산 세일

한국P&G 오랄비가 오는 31일까지 네이버 공식몰에서 ‘연말결산 세일’을 진행한다

먼저 프리미엄 제품군 ‘iO10 코스믹 블랙’ 세트는 16%, ‘iO9 블랙 오닉스’ 세트는 23% 할인한다. 입문자용 ‘iO3 아이스 블루’ 세트는 14%, ‘iO2 화이트’ 세트는 13%, ‘iO2 블랙’ 세트는 12%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어린이 제품 ‘바이탈리티 키즈 프리미엄 전동칫솔’ 스파이더맨과 프로즌 모델, 개인 취향과 구강 고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iO 리필모 실속팩’ 2종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마련했다. /이청하 기자

CAMPUS LIFE

교육과 연구 혁신이 생활이 되다

지난 6년, 연구혁신 기반 세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온 우리 중앙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교육과 함께 뛰어난 연구성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겠습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533명 전임교수 채용, 연구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조 수주
- BK21 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6개, ICT 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3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첨단 인재양성 체계 확립[시학과-시대학원, 산업보안학과-보안대학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전자전기공학부 - 지능형 반도체대학원]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 세계 6대륙 661개 대학과 학생교류, 연구협력 협정체결
- 혁신공유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실감미디어 인재 양성)



205관 첨단공학과 준공 예정





롯데홈쇼핑, ‘희망수라간’ 11년간 6.8만개 반찬 나눔
롯데홈쇼핑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나눔 시설 ‘희망수라간’을 통해 지난 11년간 지역 소외계층에게 총 417회에 걸쳐 6만8천여개의 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 위치한 ‘희망수라간’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전용 조리시설이다. /롯데홈쇼핑



락앤락 ‘그린메이트’ 25기 수료식 성료
락앤락이 친환경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메이트’ 25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29일 락앤락에 따르면 그린메이트는 회사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2013년 꾸러 10년 넘게 운영하며 약 440명의 그린메이트를 배출했다. 캠퍼스 내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락앤락



두산건설, 프로골퍼 신지애와 7000만원 기부
두산건설은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두산건설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칭그랜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맞춰 후원금을 마련하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두산건설



iM금융, 포항시 지역기업 특화금융 지원 MOU
iM금융그룹은 포항시와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역특화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편적인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iM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초교 안전 하foot길 조성 나선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효문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1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재학생 208명의 전주효문초등학교는 도심권 학군 지역에 위치해 학교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특히 평소 차량 이동과 통학하는 학생 수가 많고, 유동인구와 교통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선 필요성이 높아 안전한 등하foot길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JB금융그룹

LG전자, 산불피해 의성 고운사에 ‘스마트코티지’ 기증

단기간 설치가능한 모듈 주택 형태 전각 전소로 거처 잃은 스님들 주거 고효율 가전·태양광 등 친환경 설계

LG전자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 스님들을 위해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 LG 스마트코티지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수행하는 공간인 요사채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최근 경북 의성 고운사에 LG 스마트코티지 14평(45㎡) 2층형 모델(듀오 맥스 45)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1층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LG전



LG전자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 스님들을 위해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LG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 고운사에 설치된 LG스마트코티지 사진. /LG전자

자의 고효율 가전과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했다. 이는 자연친화적인 사찰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영남지방을 휩

쓴 대형 산불로 인해 고운사 전각이 전소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뜻 기부를 결정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석조여래좌

‘이노드림펀딩’ 누적 참여 2만명 돌파

LG이노텍 아동 중심 사회공헌 강화

LG이노텍이 임직원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 ‘이노드림펀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이노드림펀딩의 누적 참여자가 2만6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노드림펀딩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해 사내 사회공헌 포털에 사연을 등록하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모금액을 수혜 가정에 전달하는 온라인 기부활동이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올해는 연간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연간 모금액도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올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이 드림 업’을 도입해 미래세대 지원을 강화했다. 눈(Eye)과 아이(Kids)의 의미를 담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더 밝은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재편됐다.

LG이노텍은 ‘아이 드림 업’의 대표 활동인 ‘아동·청소년 실명 예방 사업’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400명에게 안과 검진 비용을 비롯해 사시, 안검내반 등 안질환 수술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올해까지 누적 1만6000명의 아동이 소재·부품 과학 교실에 참여했으며, 돌봄 기관 53곳, 아동·청소년 1900여 명의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대엄마아기병원, 6000번째 아기 탄생

7개월 만에 누적 분만 6000건 달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6일 이대엄마아기병원 2층 고위험산과센터에서 ‘분만 6000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이틀전인 23일 오전 11시 42분경 이대엄마아기병원에서 6000번째로 선택이(태명)가 태어났다. 선택이는 51세인 엄마 A씨가 7년 만에 처음 만난 아이다. A씨는 한국계 호주인 남편과 결혼해 호주에 거주하며 아이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시험관 시술을 위해 국내 병원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임신 33주차 조기 산통 상황에서 제왕절개술로 2.74kg의 선택이를 품에 안았다.

A씨는 “고위험 산모라는 점에서 병원 선택을 고민했는데 지인들에게서 이대엄마아기병원에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관리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많다는 추천을

받았다”며 “실제로 입원 전, 후 모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하고 무사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26일 병원에서 퇴원하며 ‘의료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고대하던 첫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2019년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로 문을 열었고 2024년 5월 23일 병원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1년간 매월 평균 150~160건의 분만을 시행해 올해 5월 말 누적 분만 5000건을 넘겼다.

특히 이번에는 불과 7개월 만에 누적 분만 6000건을 돌파했다. 또 올해는 엄마아기병동을 기존 20병상에서 26병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21병상에서 24병으로 각각 확장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양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 기탁

삼양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삼양홀딩스가 1억원, 삼양앤씨캡이 2억원을 각각 출연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과 미혼모 지원,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보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양그룹은 2001년부터 2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삼양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상 등 많은 보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조연우 대표는 “산불 피해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고운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LG전자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스마트코티지에 설치된 가전과 공조시스템, IoT 기기들은 LG 씽큐 앱을 활용해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모듈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 뒤 배송되는 ‘프리패브’ 방식으로 제작돼,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넥슨, 10년간 800억 기부로 사회공헌 확대

게임 IP 활용해 교육·의료 환원

올해 넥슨과 넥슨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실천해 왔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넥슨이 우리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하며,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 원에 이른다.

넥슨의 사회공헌 사업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교육, 사회복지,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코딩 교육 사업은 올 한 해 더욱 체계화됐다. 컴

퓨팅교사협회와 함께 운영해 온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소셜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융합형 코딩 교육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기준 ‘하이파이브 챌린지’의 누적 참여 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국 다수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은 정식 론칭 이후 학교 연계 수업과 찾아가는 코딩 교실, 대학생 멘토 봉사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코딩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인사

◆기후에너지환경정부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과장급 보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하

부음

▲조준근 씨 별세=조길호(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약사)·일호씨·영호씨 부친상, 이명희(국민일보 논설위원)씨 시부상=28일 20시 20분, 빈소 삼성서울병원 6호실, 발인 31일 오전, 장지 남양주 영락교회공원묘지, 02)3410-3151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135도에도 살아있는 김밥 속 시한폭탄



연 윤 열 의
푸드톡

“날씨가 이렇게 춥고, 손이 시릴 정도인데 식중독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급식 현장에 나가보면 조리원(여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겨울철 학교 급식실과 교실의 평균 온도는 대략 23~26℃ 범위다. 조리 종사원들과 아이들 입장에선 따뜻하겠지만, 세균 입장에서선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생육환경이 된다.

김밥은 간단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상하기 쉬운 예민한 음식이다. 식중독의 위험요소를 김밥 한 줄에 모아 놓은 종합메뉴라고 할 수 있다. 김밥을 구성하는 밥은 수분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계란·햄·어묵은 단백질 덩어리이며, 채소는 세척과 절단 과정에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자동말이 김밥기계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만든다. 정성은 많이 들어가지만, 오염원과 접촉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서 김밥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접

근해야 한다.

겨울철 김밥 식중독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김밥에 들어가는 필수재인 계란 지단을 살펴보자. 살짝 깨졌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사용된 계란, 겉은 익었지만 속까지 완전히 살균되지 않은 지단, 김밥제조부터 섭취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 관리 포인트다.

학교 급식처럼 대량의 김밥을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경우 김밥은 새벽에 조리를 시작해서 실온에 대기, 이동, 급식장소 대기, 섭취과정을 거치는데 이 시간 동안 김밥은 난방된 공간을 떠돌며 점점 위험해진다.

밥 속에는 ‘바실러스세레우스’라는 내열성 포자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포자 단계의 세레우스는 끓는 물 수준의 가열로는 완전 사멸이 어려워, 한 번 조리된 밥이나 지단 속에 그대로 버티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발아해 번식한다.

135℃ 고온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녀석이 김밥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가 상온에 방치하거나 보온 보관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폭발하듯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즉, “한 번 익혔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은 김밥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데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착각도 금물이다. 학교와

급식현장은 늘 선의로 움직인다. 하지만 위생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편의점 김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 대신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맛은 평범할지라도 사고 확율은 적어진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표 간식인 김밥을 급식에서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만드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김밥용 원재료는 김밥전용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 모든 급식소에는 급식 냉각 장비를 필수적으로 보급하고, 조리한 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시간·온도 자동기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영세한 소규모 김밥 전문점부터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식장소나 행사장·체험학습용 김밥은 즉석조리 또는 전문 생산공정을 활용하고 손맛으로 평가하기보다 위생기록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김밥 한 줄에 정성만 있고 과학이 없다면, 식중독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겨울 김밥 사고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식품위생 정책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사·IFTA사무총장·IFSIS 식량안보연구센터장

국회의원의 사익이 공적의무보다 우선돼야 하나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정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이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두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중에 첫번째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

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등에 직무관련자를 만나면 신고·회피·기피를 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도 포함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인·허가 등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접근해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수족처럼 부리는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듯하다. 공직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심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의 권력이 ‘제왕적’이니 제도는 뒷전이다. 이에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늘상 나오는 국회의원 권력 축소 방안이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실에 급수별로 배정된 보좌진 9명의 채용과 면직을 결정하는 ‘제왕적’ 존재다. 보좌진은 ‘의원님’을 왕처럼 모시고 심기경호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관리, 심부름까지 하며 소모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 9명의 보좌진을 의원의 꼭두각시로 키우는 것보다, 입법 연구와 성안까지 하는 인력(일반직 공무원)을 양성해 국회의원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당파를 떠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사안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2월 30일 (음 11월 11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고 일단 보고 진행. 48년생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0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 72년생 호랑이도 자기 말 하면 온다는데. 84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소

37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1년생 이직이나 진로변경은 불리하니 심각하게 고민해야. 73년생 겁 없는 투자는 인생의 먹구름 동반. 85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0년생 남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오지만 웬지 불편. 62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74년생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운명이 있는데 하늘의 뜻.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많으니 자중.

 토끼

39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업무를 열심히 하라. 51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63년생 항상 소지품을 잘 챙겨라. 75년생 큰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움직여라. 87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양

40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며 실리도 많아지는 하루. 52년생 사람과 언쟁이 생기니 말조심. 64년생 노아의 실속보다 내일을 중시하자. 76년생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도록. 88년생 자신이 승진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다.

 뱀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5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를. 77년생 늦더라도 어떤 인생이든 꽃피는 시기는 있으니. 89년생 사량이 부족하다면 반례견을 절대 키워지 마라.

 말

42년생 닭띠와의 거래는 순조롭다. 54년생 삼각관계에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6년생 환경 좋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자. 78년생 탁월한 실력이 나를 지탱하니 꾸준한 공부를. 90년생 길모습으로 만나는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고양이

43년생 동료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7년생 이사는 해도 재활동으로 남비를 줄여가며 해야. 79년생 돌아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 91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하면 먹지마라.

 원숭이

44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자. 56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며 따라가다 빛만 진다. 6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80년생 선봉에 나서면 지갑은 열어야 하는데. 92년생 자식의 도움에 감사할 줄도 알아라.

 닭

45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7년생 안팎일을 자꾸 만들어 크게 벌리지 않도록. 6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세금을 미리 내자. 81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93년생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잡아라.

 돼지

4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8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70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를. 82년생 즐거움이 있어도 언제 먹구름이 올지 모르니 겸손. 94년생 급할수록 서두르지 마라.

 돼지

47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9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71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83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력이나 건강 유의를. 95년생 비가 오면 내일의 풍요를 예고하게 되니 실력을.

김상회의四季

올 한 해, 고생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누구에게든 이 말만큼 어울리는 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말 그대로 시간이 손살칼이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코 앞이다. 아주 큰 추위도 없었는데 올 연말은 예년보다 한결 을씨년스럽고 쌀쌀한 느낌이다. 지난 일 년 동안 겪어낸 일들이 혹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사다난했다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은 마음을 졸이게 했고 팍팍해진 경제 사정은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았고 연말을 맞았다. 버텨내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애를 썼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야 한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다.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힘겨운 한 해를 잘 살아낸 것만도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름 땀별을 견뎌낸 과일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달콤하다. 가뭄과 장마를 이겨낸 곡식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준다. 일 년간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가슴 아픈 상처들도 마참가지다. 지금은 쓰라린 생채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비옥한 거름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올 한 해 많은 사람의 아픔과 함께했다. 상담을 통해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고,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그런 아픔을 덜어주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간 필자의 글을 읽어주고 공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필자의 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해의 아픔을 거름 삼아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모든 분께 위안의 인사를 건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9			6	
								9
	9					3		
							1	9
	7		2		6			4
	4	6						
		8						5
4								
	5			1		4	8	2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클라스도쿠110

중하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7	6	1	2	8	9	9
2	8	9	8	2	9	6	1	7
1	9	6	7	9	8	8	2	2
9	2	2	1	8	6	9	7	8
8	7	8	9	2	1	2	6	
9	6	1	2	8	7	9	8	2
8	1	8	2	7	9	2	6	9
2	8	9	6	2	8	7	9	1
7	9	2	9	6	1	2	8	8

9	8	7	6	1	2	8	9	9
6	1	2	9	2	8	7	9	8
8	9	2	7	1	2	9	6	8
1	8	8	9	9	7	6	2	2
7	6	2	8	1	8	9	9	
9	2	9	2	8	6	8	7	1
7	9	1	8	9	2	8	6	
2	6	9	1	7	8	2	8	9
8	2	8	6	2	9	9	1	7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내년 동백전 캐시백 최대 10%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정책을 최대 10%로 운영한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고, 월 캐시백 한도는 50만원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총 87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왔다.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로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까지 상향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

영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월 3만원, 1일 1천원의 임대료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부담하면, 영천시가 월 임대료 차액을 개발공사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천원주택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약으로 조성한 지역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으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준공한 뒤 개발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사천시

기관 표창 40건 ‘역대 최다’

사천시는 올해 중앙 부처와 경남도 주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 40건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6건보다 약 54% 늘어난 수치로, 2023년 34건을 넘어서며 자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주항공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전 부서가 역량을 모은 결과로, 이번 성과를 통해 4억 5500만원의 사업비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는 건강 증진, 가족 방역, 재난 안전 등 시정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성남시

친환경 교통정책 성과 입증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수상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략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한 ‘나 그룹’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북도, APEC 디딤돌 삼아 글로벌 교류 확대

해외정부와 교류·네트워크 넓혀
일본, 태국, 인니 등 협력관계 강화
한류콘텐츠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

경북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통상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계기로 외교·통상 협력의 외연을 한층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협력의 저변을 넓혔다. 일본 히로시마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격상했고, 태국 아유타야주와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어 문화·관광·인적 교류 중심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중국 허난성과의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태풍 피해에 위로 성



경북도청 전경.

금을 전달하는 등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경북형 글로벌 협력 모델의 정착 기반을 다졌다.

경북도는 해외자문위원협의회와 해외도민회,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공공외교의 내실을 다졌으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교류사업을 통해 경제·문화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등 민간 협력형 지역 외교체계를 공고히 했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APEC 회원국 대사들을 접견해 각국 정상과의 참여를 요청하고, 주한 대사부인회 소속 13개국 대사 부인을 초청한 문화체험 행사를 열어 경북의 역사·문화·관광 자산과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관세·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와 아세안, 중동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통상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은 경북이 글로벌 교류·협력과 통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APEC 성공 개최로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교·통상 성과가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6년을 APEC 이후 글로벌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사업을 고도화하고, 이탈리아 마르케주와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주와의 우호 교류 협력, 베트남 박닌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과 통상·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서울시, 신혼부부 ‘한옥 로망’ 현실로 만든다

종로·성북구에 공공한옥 7가구 공급
현대식 실내, 임대료 시세 60~70%

지난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돼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026년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 29일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서울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서울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 서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이 특징이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lhj@

경남도

지방세 206억 추정

지방세 탈루 법인 1107건 적발

경남도가 올해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206억원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을 적발해 이 같은 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가액 미신고·과소 신고, 부당 감면 등이 주요 적발 사유였다.

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교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데온강 지방세 비교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 592건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원을 추정했다.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 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 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고양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처리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 불편 최소화

고양시가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자체 소각 시설 활용과 민간 처리량 확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병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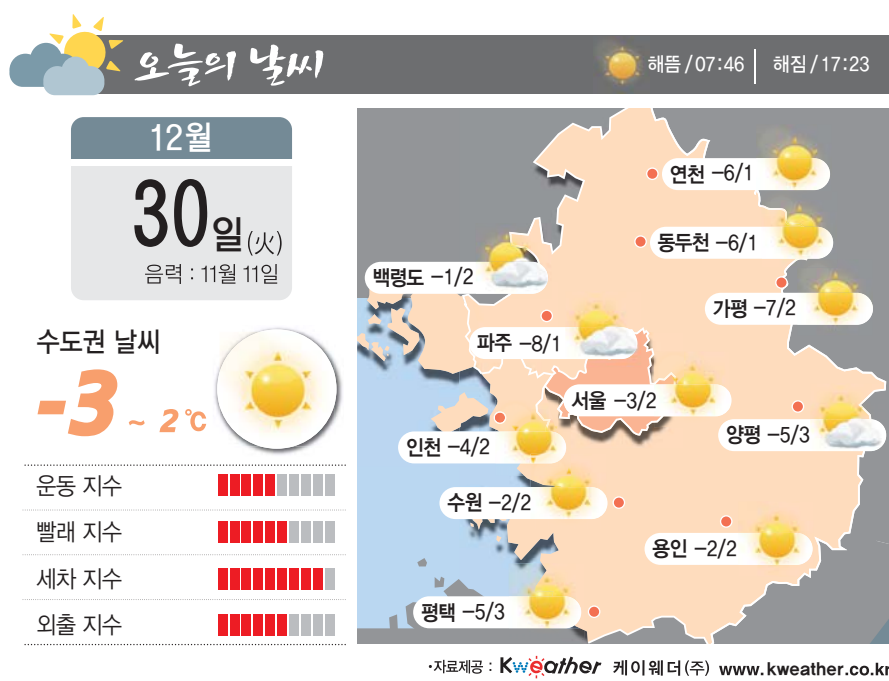
현재 고양시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310톤 규모다. 이 가운데

매 절반이 넘는 약 180톤은 시가 보유한 공공 소각시설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자체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하루 약 130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민간 처리용역을 사전에 발주해 4~5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산형 처리 구조를 구축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성과도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300톤씩 줄어 총 9809톤을 감량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日, ‘中 불법 어선 골치’ 남미 4국에 드론 등 공여…“대중국 위기감 공유”

▲샤오미 공동창업주 린빈, 최대 20억 달러 지분 매각…“투자펀드 설립 목적” /사진 뉴스스

▲“中전투기의 日전투기 ‘조준’은 미일 억지력 시험 가능성”

▲中, 대만 포위 군사훈련 돌입…“분리독립세력 대한 경고”

▲日닛케이지수, 소폭 내림세로 장 시작…0.11%↓

▲인도네시아 관광선 침몰 구조대, 스페인 축구 코치와 자녀 3명 수색중



지그재그
정보·일상 콘텐츠로
공감 이끌다
L1



Life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
“산업경쟁력 약화”
L2



선언보다 실행... 구조·수익 확장으로 증명한 ‘불도저’ 리더십

CEO 왁침

김 성 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호(號)의 최근 2년은 ‘확장’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조달 구조는 넓어졌고, 수익원은 다변화됐으며, 실적은 업계 기준점을 다시 썼다. 그 중심에는 김성환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2024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25년 3월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는 내년 3월 재연임을 앞두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임기 2년 차 CEO지만, 체감되는 무게는 단순한 ‘초반부’로 보기 어렵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약(IMA)을 모두 확보한 증권사 수장으로, 그는 이미 회사의 조달·운용·영업 구조 전반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편했다.

김 사장은 말 그대로 ‘불도저’식 경영을 선보인다. 속도가 빠르고, 방향이 정해지면 멈추지 않는다. 선언보다 실행을 앞세우고, 성과가 나지 않는 영역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눈에 띄는 경영 성과... ‘3조 클럽’ 눈앞

김성환 체제의 성과는 숫자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1조9832억원, 순이익 1조67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2%, 60.9%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만에 연간 영업이익 2조원 돌파가 사실상 확정됐고, 연간 기준으로는 ‘3조 클럽’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히 3분기 단일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영업이익은 835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약 45% 웃돌았다. 에프앤가이드가 제시한 전망치와 비교해도 괴리가 컸다. 단기적인 시장 호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과는 특정 부문에 쏠리지 않았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빠르게 늘며 위탁매매와 금융상품 판매수익이 동반 상승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개인 금융상품 잔고는 81조원으로, 연초 대비 13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도 성과는 뚜렷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등 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조달·운용·영업 구조 전반 재편
실행 경영으로 ‘3조 클럽’ 눈앞에
리테일·IB 전 영역서 실적 확대
단일부분 의존도 낮춰, 구조강화

발행어음·IMA 모두 갖춘 증권사
IMA 통해 장기적 운용자산 확보
글로벌 IB로 가는 확장 기반으로

자금유출 등 내부통제 ‘시험대’
2026년도 안정적인 관리 관건

통 IB 영역에서 고른 실적을 냈고, 운용 부문에서는 트레이딩과 대체투자가 수익을 뒷받침했다. 회사 전체 수익 구조는 리테일 30%, 운용 27%, IB 9%, PF 13%, 기타 글로벌·본사관리 부문 등으로 분산돼 있다. 단일 부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은 김 사장이 강조해온 ‘구조적 체력’ 강화의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조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5조 8148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7%, 59%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은 1년 수익률 32.83%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역시 연간 18.19%의 수익률로 해당 유형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발행어음에서 IMA까지... 조달 구조 완성

김성환 사장의 경영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조달 구조의 진화다. 그는 경영기획 총괄 시절 초대형 IB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이끌었고, 대표 취임 이후에는 종합투자계약(IMA)까지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IMA 사업자로 지정됐고, 1호 상품은 출시 후 4영업일 만에 1조원 넘게 팔리며 조기 완판됐다.

김 사장은 IMA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사 역량의 총합’으로 규정해왔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업금융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IMA 역시 기업대출·회사채·인수금융 등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IMA 사업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장기적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운용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업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IPO·유상증자·채권 발행 등 자본조달 전반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

다. 김 사장이 IMA를 ‘글로벌 IB로 가기 위한 사이즈 확장의 기반’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글로벌 행보도 병행됐다. 김 사장은 스티펠파이낸셜, 칼라일, 앵커리지캐피탈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자산 소싱과 구조화 크레딧 영역을 넓혔다. 인도네시아 파생상품시장 진출, 글로벌 리서치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성과의 그늘... 통제와 신뢰가 남긴 마지막 변수

다만 김성환 체제가 ‘성과’만으로 완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내부통제 이슈는 여전히 부담이다. 올해 11월 강남지점 P/B의 고객 자금 횡령 사건을 비롯해 회계오류 정정,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엔 큰 문제들이 줄을 이었다. 고객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내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적이 정점에 이른 시점에서 조직 안정을 택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은 김 사장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동시에 이는 그의 연임 국면에서 통제와 거버넌스가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올랐음을 방증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김 사장의 다음 수가 어디로 향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IMA 자금 운용 성과가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달 측면에서는 이미 최상위에 오른 만큼, 운용에서 의미 있는 트랙레코드를 쌓지 못할 경우 ‘몸집만 키운 IB’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금리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의 방향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은 곧바로 성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과 리테일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 중에서도 개인 고객 기반이 가장 두터운 증권사로 꼽힌다. 김 사장이 강조해온 ‘리테일 자금의 생산적 활용’이 단순 판매 확대를 넘어 자산관리·운용·기업금융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될지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성장 서사는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다. 결국 김성환 체제의 완성 여부는 속도를 줄이는 법을 아느냐, 그리고 커진 조직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을 분명히 바꿨다. 발행어음, IMA, 실적, 조직 개편까지 초대형 IB로 가기 위한 주요 퍼즐을 누구보다 빠르게 맞췄다. 성과만 놓고 보면 그의 경영은 이미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빠른 확장이 통제와 신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김성환 사장의 평가는 더 이상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metroseoul.co.kr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축구 인천, ‘K리그2 영플레이어 출신’ 미드필더 서재민 영입
▲‘벤투 오른팔’ 코스타 제주 감독 “한국, 내 고향... 주도하고 압도할 것”
/사진 뉴스스

▲축구협회, 2031 아시안컵 이어 2035 아시안컵 유치 의향서도 제출
▲당구연맹, ‘K-빌리어즈 2030’ 비전 선포...페스티벌 성료

▲남자 핸드볼 대표팀, 진천선수촌서 아시아선수권 대비 소집훈련
▲테니스 男 671위 키리오스, 女 1위 사발렌카와 성 대결서 완승